

“물질 마음 균형 이룰 때 행복”

범어사 템플스테이 관광상품화 세미나 열려

부산 범어사주지 정에는 12월 1일 오후 2시부터 부산시청 국제2소 회의실에서 부산시와 공동주최로 '범어사 템플스테이 관광상품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범어사 연수국장 도명 스님, 신라대학교 관광학과 장희정 교수, 부산시 김광희 관광진흥과장, 하나투어 부산지점 총괄팀장, 진성관광여행사 강준구 대표 등 관광·문화 관계전문가 및 시민단체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는 주제발표, 지정토론,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도명 스님은 발제에서 “행복은 물질적 요인과 마음이라는 내적 요인이 균형을 이룰 때 행복지수도 높은데,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템플스테이”라며 “범어사 템플스테이는 우리 지역 지자체와 관광산업 관계자 모두가 다양한 창조적 이해와 연구로 부산관광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미나에 참가한 관광공사 및 관광협회, 컨벤션 포럼, 여행사 등 관계자들의 질의 응답시간을 갖고 열린 자유 토론을 벌였다.

박지원 기자

지혜로운 마음으로 희망을...

동련 제46차 전국어린이지도자 연수

(사)동련은 '지혜로운 마음으로 험살 같은 희망을!'을 슬로건으로 제 46차 전국어린이 지도자 연수회를 열고 참가자를 모집한다.

12월 13~14일 속리산 유서호스텔에서 1박2일간 마련되는 이번 연수회에는 참가자 전원에게 연수 자료집, 2009년 다이어리, 미니달력 등이

무료로 지급된다.

참가비는 당일 접수 6만원, 12월 8일 전 접수 5만5000원, 학인스님 및 대한불교교사대학생 4만원, 도서지역 거주자 3만원이다. 홈페이지(www.dongja.org) 및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051)864-4570

박지원 기자

불교복지 시설종사자 연수회

경남불교사회복지협

경남불교사회복지협의회(회장 승욱)는 11월 21~22일 하동 청소년수련관에서 경남지역 불교사회복지 증진 및 활성화화를 위한 '제3회 시설종사자 연수회'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한국사회복지사회 협회 조성철 회장의 '사회복지사의 비전과 미래',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대표 각현 스님의 '사회복지현황에 따른 불교사회복지시설의 대응 방향' 등의 강의가 마련됐다. (055)673-5321

박지원 기자

실상문학상 대상 류남희

11월 29일 시상식

제11회 실상문학상은 수필가 류남희씨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부산불교문인협회(회장 최진호)는 11월 29일 오후 5시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제11회 실상문학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수상자는 대상에 수

필가 류남희, 우수상에 권운호 시인과 김명옥 시인이 각각 차지했다.

심사기준은 △불교 문단활동과 왕성한 작품활동 △충분한 도덕성을 갖춘 문인 △부산 불교문학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선정, 시상했다.

박지원 기자

음성공양으로 자비를...

공동선실천종교지도자협·부산생명나눔 음악회 '성황'

때 이른 겨울바람에 마음까지 얼어붙는 11월의 마지막 주 부산에서는, 자비와 평화를 노래하는 음악회가 잇달아 열렸다.

부산 공동선실천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정여)는 11월 26일 오후 6시 여여선원 7층 법당에서 '생명 존중과 평화를 위한 음악회'를 열었다. 1부 기도는 촛불기도회, 기도문 낭독, 목상 순으로 진행됐다. 2부 작은 음악회에서는 부산기독교 중창단의 '항수' '주의 사랑으로' 'Abova all', 원불교 원음합창단의 '거룩하셔라 우리 대중사' '솔바람 속에서', 부산그레고리오 합창단의 'Ave Maria' '이사야 말씀하신', 여여선원합창단의 '연꽃향기 가득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한파 스님 등의 범패 시연 등 종교를 초월한 열린음악회가 마련됐다.

정여 스님은 "웃 모양과 노래, 생각은 서로 다르지만 음악을 통해 영적인 교감으로 모든 종교가



부산공동선실천종교지도자협의회가 11월 26일 '생명 존중과 평화를 위한 음악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한파 스님 등의 범패 시연 모습.

함께 자비와 사랑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종교 간의 막힌 장벽을 허물고 인류를 행복과 평화의 세계로 이끌자"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8시 30분 동아대 학교의료원 본관 로비 1층에서는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부장 원범)가 주최하는 '환자 쾌유를 위한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1부에는 사랑의 떡을 병동 전체에 나누고 어린이병동에

서는 풍선 아트와 즉석 사진촬영 이벤트가 마련됐다. 2부에는 성우원 합주부, 현악 4중주, 마술쇼, 오키리나 연주, 통기타 연주 등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졌다.

원범 스님은 "무병생활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환자와 가족에게 아름다운 선율로 병마를 이겨낼 수 있는 의지와 희망을 심어 주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대중공양으로 이웃 공경

거창사암련·삶의심터 무료급식

경남 거창군사암연합회(회장 석전·연수사 주지)와 거창군 삶의심터(관장 박재진)는 11월 20일 거창포교당에서 독거노인 및 장애인 350여 명을 초청해 무료급식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거창군사암연합회 총 12개 회원사찰 중 10월 30일에 열린 남하 정토사주지 수련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것. 이번 무료급식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거창군수 양동진씨의 부인 표정희씨는 "350명이 적은 인원은 아니어서 다른 때보다 많은 양의 밥과 반찬을 준비해야 했지만,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맛있



거창군사암연합회와 거창군 삶의심터가 11월 20일 무료급식을 했다.

게 드려주셔서 피로조차 못 느낄 정도"라고 말했다.

석전 스님은 "앞으로 거창군사암연합회에 속한 12개 사찰이 차례로 매달 한 번씩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초대해서 대중공양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상월원각 대조사

존상 봉안 법요식

밀양 천태종 삼양사주지 진덕)는 11월 24일 오전 10시 원봉보전에서 상월원각 대조사 존상 봉안 법요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요식은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총무원장 정산 스님, 종의회의장 도정 스님, 감사원장 준광 스님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지 진덕 스님은 "이번 상월원각 대조사 존상 봉안은 우리 삼양사가 밀양 지역발전의 뜻을 함께 한다는 증표"라며 앞으로 지역발전에서 더욱 헌신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 밝혔다.

박지원 기자

우리지역 부부나혼자

(재)일념장학회 이사장 이대원행

우리시대 부처님 기르는 마야부인

"우리 기자님 만나려고 한결 음에 달려왔습니다. 저처럼 낮은 사람을 만나러 와주셔서 참 반갑고, 고맙습니다."

30여 년간 불교인재 육성에 헌신하고, 12월 2일 조계종 포교대상 계층포교부문을 수상한 (재)일념장학회 이대원행 이사장(사진, 기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인사하는 그녀는 관세음보살의 마음처럼 한없이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첫 인사를 건넸다.)

이대원행 이사장은 (재)일념장학회, 파라마이타협회, 부산불교실업인회 내 마야부인회, 동국대학교 발전위원 등 여러 재가불자

신행단체에서 30여 년이 넘게 활동한 탓에, 부산교계에서는 '그녀를 모르면 간첩'으로 통할 정도다. 부산 교계의 그늘진 곳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자 늘 노력하지만, 그 중 (재)일념장학회에 대한 열정만큼은 특히 남다르다.

"통도사 극락선원 경봉 스님을 찾아 불법을 공부하던 11명의 보살들이 '십일면관음보살의 원력을 닮으라'던 경봉 스님의 말씀을 따라 '일념회'를 만들면서 시작했어요." 일념장학회의 첫 출발이 1971년이었으니 벌써 30여 년 전의 일이다. 당시 일념회는 신행봉사모임일 뿐이었다.

"현재 미국 시카고 불심사에서 포교 중인 범종 스님이 일본 대정대학원에 유학을 할 당시 학비를 돕기 시작하면서 장학회가 시작됐고, 특히 승가 교육에 각별한 정성을 기울여 승가대학 학비지원을 지금까지 한해도 거르지 않고 있어요."

'스님들 공부 수발을 잘 하라'는 경봉 스님의 뜻을 따르다 보니 일념회는 자연스럽게 육영사 입단체로 변화했다. 부처님오신날 밀가루 공장을 하는 회원이 밀가루 봉투에 <법구경>을 새겨

나누주기도 했고, 봉암사 해인사 등 선방 대중공양은 물론 삼보사찰과 운문사에는 팔만대장경을 기증하기도 했다.

일념장학회의 장학금은 '어머니의 장학금'이기에 더욱 남다르다. 지금까지 일념장학회가 전달한 장학금은 자그마치 1억여 원. 매년 10명의 청소년과 5명의 스님에게 장학금이 전달된다. 2005년에는 장학기금 1억원 조

성을 위한 전시회 전시회를 마련했다. 전시작 40여 점을 구하고 전시하고 또 판매하기까지도 많은 과정을 이대원행 이사장이 직접 발품을 팔고, 소원하던

장학기금 1억원을 모금하는데 성공했다. 일흔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이토록 열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데에는 굳은 신심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다져진 건강 덕분이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30분간 좌선을 하고, 남편은 목탁을 직접 치며 거실에 걸린 경봉 스님 사진 앞에서 <반야심경>을 봉독한다. 집 근처 해운대 동백섬을 돌며 상쾌한 아침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연다. 일흔이 넘은 나이로 힘들 법도 한데 장학기금 마련을 향한 열정은 도무지 식을 줄을 모른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장학금을 보다 많은 이들에게 주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 이 이사장은 얼마 전 동국대학교 발전위원으로 위촉돼 기금마련을 위한 활동도 시작했다. '살아있는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얻은 1남3녀 모두 출가시킨 요즘, 대원행 보살은 더 열정적인 오늘을 산다. 장학금을 주고 싶은 학생이 너무나 많기에 할 일이 많아있다는 그녀가 바로, 이 땅의 수많은 부처님을 기르는 마야부인이다.

박지원 기자



자동차용 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호신불규격직경3.5cm,세로4.5cm

▶자동차사고 예방 점안식과 축원불공마차!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열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 된다. 열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사는 동안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반가사유상 호신불이다. 우리나라 호신불의 역사는 삼국시대 신라부터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신차출고시 사고예방과 생명보호의 선물

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몸에 지니고 전쟁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전해진다. 한 치 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의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환날이 없는 오늘도 인명을 지키는 수호신인 반가사유상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운전하는 남편께, 존경하는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아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신라 화랑장수와 귀족들이 수호신으로 사용했던 호신불을 재현한, 반가사유상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취되게 비방의 "반장"과 백연화를 넣었다. 생명보호와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동호신불을 자동차 운전석 위 툴팁라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 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45,000원



신청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2008년 11월 28일부터 나가는 삼재시작!

나가는 삼재화를 소멸하고 승리하는 비방!

2007년 드는삼재 2008년 묵는삼재 2008년 동지달부터나가는 삼재가 시작된 소띠,뱀띠,닭띠는 2009년말까지 제일 어렵다는 나가는 삼재해로 각별히 조심하고 자중자애하며 근신하는 마음이

2009년 가는 삼재조심 소띠,뱀띠,닭띠

제일힘든 떠나는 삼재소멸과 365일 무탈 발원 금강저

로 조용히 지나야 한다. 드는해와 묵는해에 소띠,뱀띠,닭띠생들이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려 고통받고,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실패하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는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2009년말까지 나가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완벽한 비방을 하는것이 안전합니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를 막아 액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중생들에게 부처님법구인 금강저를 품어지니고 다니게 하고 나가는 삼재해에는 365일간 삼재소멸 불공과 무탈기원을 합니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

1929년생 뱀띠	1957년생 닭띠	1985년생 소띠
1933년생 닭띠	1961년생 소띠	1989년생 뱀띠
1937년생 소띠	1965년생 뱀띠	
1941년생 뱀띠	1969년생 닭띠	*적색글씨에 해
1945년생 소띠	1973년생 소띠	당되는 문은 약
1949년생 소띠	1977년생 뱀띠	삼재입니다.
1953년생 뱀띠	1981년생 닭띠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불공 마차



여성용은나노반지갑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남편과 자녀에게 성공의 선물

부처님법구에는 세사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慈悲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안 지갑역시 연이되면 돈이 동서 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묘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평생 부자가되게 축원불공을 마친

다라니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돈이 들어오게 하는 비방의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고급소가죽에 금나노, 은나노 처리 까지있고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불공사에서 지갑 사용하실 분의 물질의 소원과 원대한 계획이 성공되게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린다. 남성용 금나노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은나노장지갑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